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북한포커스

최근 북한 의약품 생산 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3

북한포커스

최근 북한 의약품 생산 현황 5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8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재준 (june97@kdb.co.kr)

- ◆ 최근 구독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현재 국내의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는 초기 단계이나,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 및 신성장동력 마련 등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최근 디지털 유통채널 발달 등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Zuora*의 창립자인 Tien Tzuo는 구독경제를 제품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하여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
 - * '07년 설립된 미국의 기업용 구독경제 결제 시스템·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 구독경제는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기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온라인 상거래, 빅데이터 등의 혁신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 등으로 기존 정기구독 모델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영역 확장 중
 - * 신문·잡지 구독, 정수기 렌탈, 우유 배달 등

구독경제 유형별 특징 및 사례

구분		무제한형	정기배송형	렌탈형
이용 방식		월 구독료 납부 후 무제한 이용	월 구독료 납부 후 정해진 기간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수령	구독료 납부기간 동안 렌탈하여 사용
사례	해외	넷플릭스(영상), 포워드 헬스케어(의료)	버치박스(화장품), 달러쉐이브클럽(면도용품)	포르쉐 패스포트(자동차), 르 토트(의류)
	국내	웨이브(영상), 멜론(음원), 밀리(전자책·종이책)	와이즈리(면도용품), 톤28(화장품), 꾸까(꽃)	현대셀렉션(자동차), 오픈갤러리(그림)

- 차별화된 소비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글로벌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우버 등 공유하는 데 익숙하며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
- Credit Suisse는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15년 약 4,200억 달러에서 '20년에는 약 5,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구독경제지수(Subscription Economy Index)*에 따르면, '12년~'20.2분기 구독경제 기업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17.8%로 S&P 500 매출지수 3.1% 대비 약 6배
* Zuora가 개발한 지수로, 해당 지수에 포함되는 구독경제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의 일부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들이 월정액 수입료 모델을 도입하고 있음**

* Ernst&Young은 앞으로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에서도 구독경제 모델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19년)

- 미국의 Charles Schwab*, MoneyLion** 등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영역에서 월정액 방식의 구독 서비스 제공

* Charles Schwab은 '17년 수수료 0.28%인 자산관리 서비스(Schwab Intelligent Advisory)를 출시했으나, '19년 월 정액제(30달러) 방식으로 서비스(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Premium) 변경

** MoneyLion은 플러스멤버십(월 19.99달러) 앞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독일의 N26*, 영국의 Revolut** 등의 경우 계좌 개설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월정액 요금제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

* N26은 회원등급을 N26(무료), N26 You(월 9.9유로), N26 메탈(월 16.9유로)로 구분해 해외송금, 보험 등 제휴사 서비스 혜택을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

** Revolut는 회원등급을 스탠다드(무료), 프리미엄(월 6.99파운드), 메탈(월 12.99파운드)로 구분하여 환전수수료, 무료 해외 ATM 인출 서비스 등을 차등 제공

N26의 회원등급별 혜택

	ATM 현금 인출 무료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해외 현금 인출 무료	제휴 서비스 할인 혜택	VIP고객 지원센터	월 회비
N26	○	○	X	X	X	무료
N26 You	○	○	○	○	X	9.9유로
N26 메탈	○	○	○	○	○	16.9유로

자료 : N26 홈페이지

□ **국내의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소비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신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고려할 필요**

- 국내에는 토스가 토스프라임(월 2,900원) 고객 앞 환전 우대, ATM 출금 수수료 무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입단계 수준이나, 향후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개인 자산관리 등을 제공하는 월정액 중심의 구독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금융권은 경험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독경제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

최근 북한 의약품 생산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박창진 (jintonic@kdb.co.kr), 조서연 (sycho52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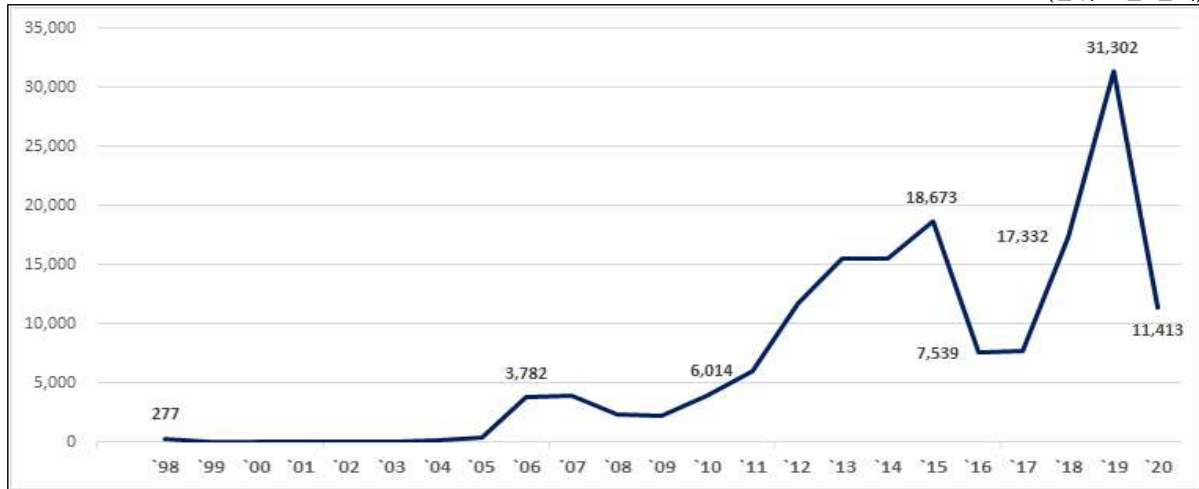
- ◆ 북한 의약품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공급 차질 및 가격 폭등 발생
- ◆ 의약품 부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별 자체 의약품 제조, 고려약(한방약) 생산 독려, GMP* 기준에 따른 기존 제약공장 현대화 등 자구방안 모색 중
 -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료기구·식품·화장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
- ◆ 향후 국경봉쇄 해제시 수입 재개에 따라 의약품 부족 문제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생산능력 증대 등 근본적 수급 개선에는 장기간 소요 예상

□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로 의약품 수입이 급감하여 심각한 부족현상 발생

- '90년대 초반까지 보건당국이 사회주의권 국가와 협력하여 의약품 생산·공급을 전담해 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원료 부족,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급감으로 의약품 생산능력 저하
 - '고난의 행군'('95~'98년) 이후 의약품 공급은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
 - * 중국 의약품 수입액은 고난의 행군 직후인 '98년 27.7만 달러에서 '19년 3,130.2만 달러로 연평균 39.9% 증가
- '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로 중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이 감소하여*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 수급에 차질 발생**
 - * '20년 중국 의약품 수입액은 1,141.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 감소
 - ** 서울평양뉴스(2020.12.22자), "북, 국경봉쇄 1년... 의약품 고갈, 장마당 인파 절반이상 감소"
 -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품 품귀 및 가격 폭등도 발생
 - * 데일리NK(2020.04.03자), "'항생제, 코로나19에 효과 없다'는데... 北 시장서는 가격 폭등"

중국 의약품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의약품 조달을 위해 의료기관 자체생산, 고려약 생산 장려 등 자구책 모색 中

- 정성제약공장 등 10여개 중앙급 제약공장에서 3~4종의 항생제와 20여종의 합성의약품, 소규모 지방급 제약공장에서 재래식 제조법으로 1,200여종의 고려약(한방약) 생산 中
- 의약품 부족 해결을 위해 보건당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자체적 의약품·의료기구 생산을 지시*
 - * 데일리NK(2020.7.3자), "北 의약품도 자력갱생?... '병원서 자체로 제조·사용하라'"
- 단기간에 부족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려약 생산을 독려하여 양적 개선 추진
 - 고려약은 1차 의료기관 투약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대중화되어 내과 질환 및 일부 수술관련 질환 등에도 활용*
 - * 한의신문(2020.4.21자), "고려의학, 북한 전체 일차의료서비스의 70% 담당"
 - 고려약 생산 확대를 위하여 주요 고려약 공장 앞 생산량 증산 지시*
 - * NK경제(2020.2.26자), "북한, 코로나19 대응 항바이러스 약물 개발 총력"

주요 고려약 제품

안궁우황환(건강보양)



자료 : 중국 바이두(百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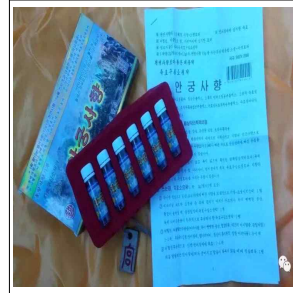
금인등근알(간세포 특효)



뇌심사향(뇌질환 개선)



안궁사향(간세포 특효)



○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주요 제약공장 GMP 인증 설비 건설 등 의약품 생산 공정 질적 개선도 추진

- 제약공장 GMP 인증 건수는 '08년 1건(평스제약공장), '19년 2건(토성제약공장, 룡흥제약공장)에서 '20년 상반기 정성제약공장 등 10건 이상으로 급증*

* 뉴스1(2020.7.14.자), "우리도 질 좋은 물건 만든다... 북한, '품질 인증' 자랑"

GMP 인증 공장(정성제약공장)



자료 : 조선중앙통신(2020.2.24.자)

GMP와 QCC 인증 증서



자료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신년포럼 발표자료(2021.1월)

□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국경봉쇄 해제에 따라 의약품 품귀 현상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생산능력 증대 등 근본적 수급 개선에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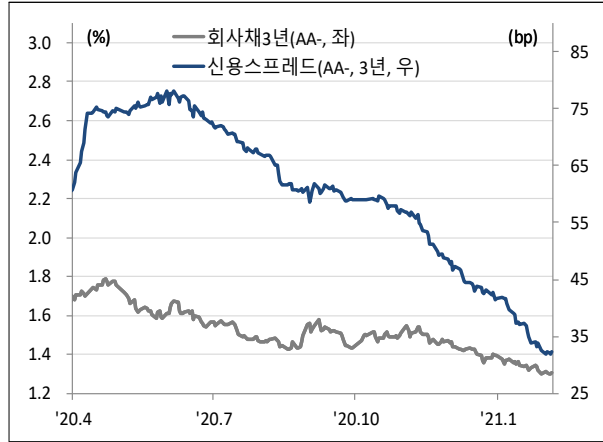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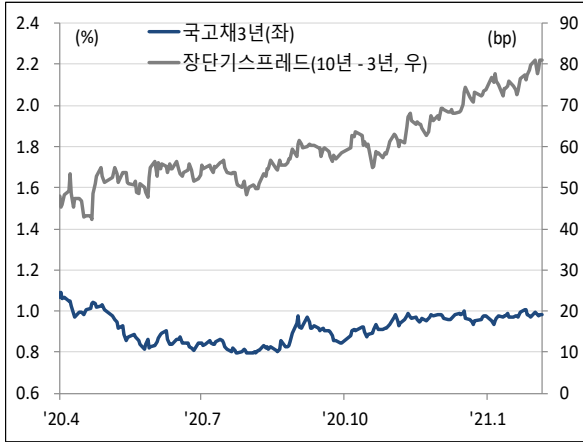
○ 중앙급 제약공장은 '50~'90년대에 설립되어 설비 노후화가 심각,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물량 및 품질 모두 미흡*

* 메스파나(2018.6.27.자), "복지부, 북한 제약공장 열악... 장단기 지원·협력 강구"

○ 다만, 제약·의료 부문은 대북 경제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변국을 통한 생산설비 확충 등 협력사업 기대 가능성 강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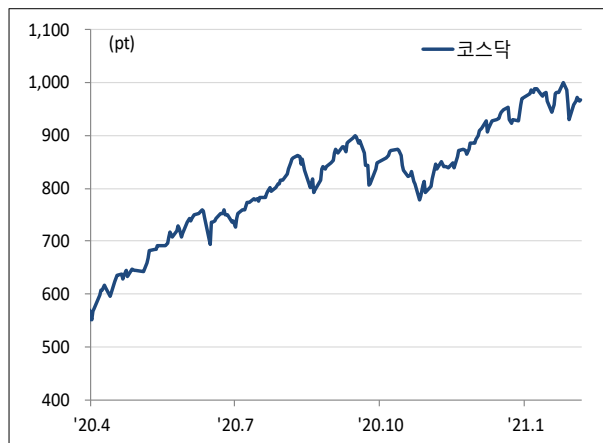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0.982% (1.1bp ↑), 신용스프레드 32.4bp (0.2bp ↓)



환 율 원/달러 1,123.7원 (4.9원 ↑), 엔/달러 105.38엔 (0.63엔 ↑)



주 가 코스피 3,120.63pt (4.85% ↑), 코스닥지수 967.42pt (4.17%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14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